

지역 소식 통

정읍시니어클럽 참여자
쓰러진 이웃 생명 구했다

정읍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단 ‘행복한 동행 I’ 참여자가 홀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해당 참여자는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정우면에 사는 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 홀로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참여자는 즉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어 주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급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 덕분에 어르신은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구시포 · 동호
해수욕장 18일 폐장

고창군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이 지난 18일 40일간의 운영을 종료했다. 고창군은 올해에도 유관 기관과의 빈틈없는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현장 관리에 나서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무사고 해수욕장’을 실현해 냈다. 고창군은 폐장 후 관광객들을 위해 안전요원을 23일까지 연장 배치하고, 안전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미국흰불나방
확산 차단 방제 안내

정읍시가 8~10월 초까지 피해를 주는 미국흰불나방의 두 번째 발생 시기를 맞아 현장 점검과 방제 안내에 나선다. 시는 가로수 주변과 농경지에 인접한 나무, 마을 주변 수목 등을 살펴 미국흰불나방의 발생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농경지나 주택 주변에서 방제약을 사용할 때는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부안군, 공시제 부문 수상 쾌거... 청년 · 여성고용률, 상용근로자 수 역대 최고 성과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안특화 일자리 플랫폼 구축,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 정책 운영,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있는 경제관광, 사람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청년고용률 50.1%, 여성고용률 75.2%, 상용근로자 수 7200명을 기록하며 주요 고용지표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부안특화 맞춤형 일자리로 지속가능한 부안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또 부안군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상용일자리와 농가일자리를 연계하는 부안형 일자리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청년분야에서는 전북 최초로 군비 1억원을 투입한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했고 청년 주거비 지원과 청년임대주택 조성, 청년특화



주택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지역정착 기반을 강화했으며 청년혁신가 창업 지원사업과 부안동행Tip 사업을 통해 창업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 지원하면서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 기반도 강화했다. DH글로벌과 제3농공단지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환경 조성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이끌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고 도소매 · 숙박 · 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전년대비 12.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를 전년대비 27%, 장애인일자리를 전년대비 17% 확대했으며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과 여성새일센터 취업 연계도 강화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에도 힘썼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6618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기업, 관계 기관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소산업과 해상풍력, 관광산업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부군수, 도청 찾아 핵심 사업 반영 건의

전북형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건의... “도정 비전과 부합하는 현안사업 지속 발굴”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전북형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 등 7개 현안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먼저, 고창산 경제부지사를 만나 ‘전북형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서남권 우선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북 동부권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김 부군수는 고창군을 포함한 서남권 역시 농어업 인구 비중이 높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만큼 균형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임철언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향후 기관배정 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을 만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OC 사업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고창을 중심거점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제2차 전북도 지역개발계획(’28.~’37.) 반영 △무장-상하 간 지방도 733호선 신설사업 제5차 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 등이

다. 특히 ‘무장-상하 간 지방도 733호선’ 구간은 유사시 한빛원전 비상 대피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상하능원 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임을 강조하며, 지난 2023년 시급성을 인정받아 지방도로 승격된 만큼 신속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민선9기 전북특별자치도정과 고창군 비전과 부합하는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민선9기 함께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기획예산처 예산심의가 한창인 반포를 직접 방문하는 등 2027년 국가예산 최대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8 · 2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IC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완료

세계유산도시 정체성 부각... 고인돌 · 갯벌 · 해양생물 형상화

고창군이 서해안고속도로 고창IC 진입도로에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상징 경관조형물 설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창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사업비 9억 45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조형물은 고창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과 갯벌, 해양생물 등을 형상화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제 고창에 들어섰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최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야간에도 조형물을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함께 설치해 시인성과 매력도를 끌어올렸다. 앞서 고창군은 흥덕면 재하사거리, 고창읍 솔재 등에도 고인돌과 갯벌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이색 조형물을 설치해 세계유산도시의 정체성을 끌어 올리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산불진화임도 평가 도내 최우수

내년 사업 예산 추가 지원 예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임도 신설 사업 평가에서 도내 13개 시군 가운데 산불진화임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027년 사업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평가는 2025년에 새로 조성된 산림관리도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산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을 심사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노선 선정의 적절성과 주변 경관 훼손 최소화 여부, 재해 안전성, 산림사업 활용도, 비탈면과 노면의 안정성 등이다. 이번에 평가받은 철보면 수청리 산

불진화임도는 도로 폭 5m 안팎, 길이 1.8km 규모다. 식물을 심어 비탈면의 흩어 슬러 내려가는 것을 막는 녹화 방식과 안정적 도로 경사, 고른 노면 상태 등에서 시공 품질을 인정받았다. 산불진화임도는 산불 발생 때 진화인력과 차량이 산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도로다. 평소에는 산림 관리에 활용되며, 산불이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을 막는 차단선 역할도 한다. 시는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수청리 일대 산불진화임도를 총 5.2km 길이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2027년 임도사업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요 임도 전 구간 정비 마쳐

관내 임도 24개소 총 49.1km 구간... 노후 벤치 · 정자 보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숲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요 임도 전 구간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관내 임도 24개소 총 49.1km 구간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름철 무성하게 우거진 잡목과 잡초를 깔끔하게 정비하고 배수로와 안전시설을 전면 점검해 통행 안전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휴식 편의에 집중했다. 낡고 색이 바랜 벤치와 정자(퍼걸

러) 등 휴게시설을 산뜻하게 도색 · 보수해 걷다가 언제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숲속 쉼터로 단장했다. 실제 현재 계획산 임도 일원에는 분홍빛 배롱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원하게 펼쳐진 새만금의 푸른 바다 전경과 붉은 배롱나무 꽃길이 어우러지면서 여름철 대표 인생샷 힐링 명소 눈길을 끈다. 이번 정비로 주민들의 숲길 산책 재미가 한층 더해질 뿐만 아니라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활동에도 한걸음 돌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전주매일 캠페인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동죽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펴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쉼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쉼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쉼니어는 펴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